

재난은 운명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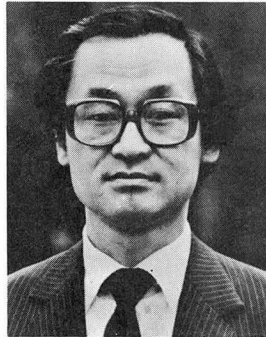
불과 물에는 원수가 없다지만 요즘같이 불난리·물난리가 많아져야 고마움 못지 않게 두려움이 앞선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대자연 앞에서는 참으로 무기력하여 해마다 겪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고통을 겪는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생태계의 이상 때문인지 걸핏하면 30년만의 가뭄이고, 쏟아졌다 하면 몇십년만의 홍수이니 이제는 햇수를 따져 자연의 재난을 설명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금년 여름의 더위와 장마만 해도 그렇다. 우리가 지난날의 장마나 더위가 얼마나 심했던가를 잊었던 탓인지, 아니면 이제 좀 살기 좋아졌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인지는 몰라도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도 범석을 떨었다. 옛날 중국에서는 7년 대한(大旱)에도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은 날이 없고, 9년 홍수에도 햇살이 비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데, 요즘의 기상이변이야 말로 참으로 조화속이다.

왜 우리는 해마다 이 난리를 겪어야 하나?

그것은 날씨 탓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유산과 관련이



신복룡

(건국대교수·정치학박사)

있다. 소위 7세기에 삼국통일을 이루고 만주 옛 고구려 땅을 잃은 후로 우리의 문화 유형은 대륙을 달리는 유목민족에서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문화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하천문화권의 민족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하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고 하는 일종의 숙명론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민족기질은 결과적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자연에 도전하고 자연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박약하다는 점에서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그 안에서(man with nature) 사는 모습이 아름다운가 하면 때로는 자연에 도전하면서(man against nature) 살아가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옛날 중국의 夏王朝를 창건한 사람은 禹임금이었다. 비록 전설적인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禹임금은 堯임금과 舜임금을 모시었다고 하는데 특히 강을 다스리는 데에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공덕을 인정받아 舜임금이 죽자 그 뒤를 이어 王위에 올랐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은 광활한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도 黃河의 범람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해 왔었다. 중국의 중앙에서 황토몰이 쏟아져 흘러들어가는 黃河는 백년에 한번쯤 맑아지기도 어려워 黃河가 한번 맑아지면 聖인이 출현한다고 믿기까지 했다. 黃河는 비록 흐리다고는 하지만 1년중 4월 초순이 그래도 가장 맑아서 이 날을 淸明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禹임금이 堯·舜을 모실 때와 스스로 帝王이 되었을 때 주로 하는 일이란 黃河를 다스리는 일이었다. 그는 밤낮을 黃河에서 살았고 처자를 돌볼 겨를도 없었다. 언제인가는 인부들을 데리고 黃河로 나가던 길에 자기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의 얼굴이 그렇기도 했지만 백성을 위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 그는 자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못본 채 외면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禹임금은 세번이나 집 앞을 지나면서도 가족을 만나지 않았다.

禹임금이 黃河를 잘 다스린 것은 그의 능력이라기 보다는 백성을 위하는 그의 진심이 그만큼 돈독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은 그만큼 정직하며 인간에 대하여 끝없는 애정을 가졌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기에 토인비는 역사를 쓰면서 지구야 말로 인류의 어머니라고 표현할 것이 아닌가 싶다.

자연이 이토록 자애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재난을 안겨준다. 그리고 재난을 당한 인간들은 그것을 운명이려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원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운명이란 자기 할 탓이오, 자기가 베푼 것의 업보가 아닌가 여겨질 때도 있다. 물론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나에게 실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충돌함으로써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것이 과연 내 탓이냐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방어운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피해자는 자신의 불행에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요행이니 행운이니 하는 것도 자기 할 탓이 아닌가 싶다. 세계적인 오페라 지휘자 토스카니니(A. Toscanini)는 본래 첼로연주자였다. 그가 리오데자네이로의 한 악단에서 첼로연주자로 일할 때, 서투른 지휘자가 청중의 야유를 받고 퇴장했다. 낭패가 된 악단측은 급한 김에 토스카니니에게 대리 지휘를 부탁했고 그의 지휘는 의외로 호평을 받아 18일간이나 연장 공연하면서 그를 일약 유명한 지휘자로 변신하게 만들었다.

이 경우 토스카니니는 요행을 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가 만약 평소에 자기의 인생을 충실히 살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기회가 왔더라도

위대해질 수가 없었다. 시력이 영에 가까운 장애를 이기기 위해 밤새워 악보를 암기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리오데자네이로의 기회는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종말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운행이나 인생살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행운이나 재앙이 운명적인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운명은 그가 사랑하며 베푼 것에 대한 하늘의 갚음일 뿐이다. 따라서 재앙도 내 탓이오, 행운도 내 탓이다. 마치 내년에 죽을 운수를 타고난 사람이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온 덕분에, 내년에 가면 다시 그 내년에 죽을 운명으로 생명을 연장해 나가듯이... (㉞)